



會 報 同 窓 總 士 空

發行人：朴 雄 鎮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孫 榮 壽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회보 인덱스

- 2 • 正論
 - 人間的 價値
 - 노후를 멋있게 살려면
- 3 •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 4 • 母軍, 母校 短信
- 5 • 태극의 원리로 통합할 우리 거래의 꿈
- 6, 7 • 軍事文化에 對한 考察
- 9 • 靑少年·少女들 이어! 꿈을 가져라
- 10 • 韓民族의 時代精神(上)
- 11 • 외교 행낭

會 長 任 期 를 마 치 면 서



朴 雄 鎮(공사 4기)
○ 공사 총동창회 회장
○ 시 인

공군사관학교가 존립해야 할 당위적인 원론을 제쳐놓고라도 국토방위의 중심에 위치한 國力 空軍으로서 우주공간의 무한발전이라는 첨단과학이 너무나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실로 중차대한 위치에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문경비한 군의 지휘관으로서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핵심 지도자로서 추호도 손색이 없는 4년간의 주·덕·체의 소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은 동문여러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삼의 가치관에 대한 보람을 만끽할 수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母校의 품을 떠나 다양한 사회구조의 새로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정신력과 육체적인 고통은 새로운 社會에 헌신하고자 하는 드높은 충성심에서 발전한 것과 같은 다짐입니다.

母校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남다르게 돋보이는 것은 4년간의 전우애와 일생을 군에 몰바쳐 온 우국충정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평생동지로서 그 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과 같이 비유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익힌 지식과 능력을 실본 발휘하여 사회에 접목시킴으로 나아가 國家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일반 대학과 현격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 동창회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교의 개교 50주년을 1년여 남겨두고 국가안보라는 시대적인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미래지향적인 세계화나 정보화 등 국제적 사회기능에 뒤떨어져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됩니다. 연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추진의 주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 동창회도 진일보의 발전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1년 동안의 동창회를 주관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선배회장님들이 이룩해 놓으신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야 하는 절실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부터 갖추어야 할 내용이 충실하여지는 것처럼 참여의식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수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시는 선배 동문들이나 뒤따르는 후배 동문들이 참여하고 연대해 보자는 의식구조의 결여가 평생회비 징수문제 등 지지 부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아낌 없는 격려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런데대로 대과없이 회장직을 마치게 된 것을 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나누어 드린 동창회 배지를 멋있게 패용할 수 있는 회원, 그리고 동창회에서 연 4회이상 발간되는 신문을 열심히 보시고 평생동지로서 자긍심을 잃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자존의 양식과 민족 긍지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모교과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국가의 핵심전력으로 영공방위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동문들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星 武 台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룰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세워진 현충탑에는 이렇게 비문이 새겨져 있다. 조국을 수호하다 숨진 장병들의 영령이 잠든 곳.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엔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굽어보는 이 섬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잠엄하게 거행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목숨을 오직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초개처럼 버린 용사들의 죽음을 되새겨 본다. 敵機와의 치

열한 공중전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보라매, 육중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낸 용사들, 이름없는 골짜기에서 군번도 없이 피 흘린 학도병, 공비토벌의 임무를 띠고 산간

년 현충일에 이들을 추모하는 뜻은 이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값진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는 결의를 다짐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물려주는 것만이 독립 묘지에 묻힌 영령들을 외롭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 조국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깨달아 오늘의 조국을 피와 땀으로 가꾸는 것을 보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선조들은 조국이 위난에 처할 때 일신의 안녕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국난극복에 몸과 마음을 바쳤기에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던 것이다.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줄기찬 불빛이 후세에 빛날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찬 조국의 내일이 기억될 것이다.

현충일의 의의

벽지에서 숨진 전투경찰,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공산배트공과 싸우다 전사한 장병, 조국광복을 위해 오랜 옥고 끝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순국선열.

이들의 죽음이 없었던들 오늘날의 조국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메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엄숙하고 숙연한 마음과 집과 이들의 죽음을 못지않게 희생적 의지와 행동력을 발휘, 조국에 모든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姜 容 求 (공사6기)
○ 공사총동창회 사무총장

聖賢에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 자기 혈삼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小宇宙라고 한다.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의 신비함을 못 알아냈다. 여러 가지 기계와 발명품이 나왔지만 사람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전자동장치로 되어있어 부분별로 기능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보통사람은 하루에 2천5백 칼로리의 열을 발한다. 이 열은 25잔의 커피를 끓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신체의 각 부분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를 가진 온도조절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 몸 한 부분이 너무 덥든가 차가우면 신호가 대뇌에 보내져서 혈액순환을 통해 열의 발산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人 間 的 價 值

기구인 심장은 하루에 10만3천번을 뛰면서 1억6천8백 마일이 넘는 혈관에 피를 공급한다. 숨은 하루에 2만3천을 쉬면서 4백38입방 미터의 공기를 마시며 입으로는 2만5천 마디의 말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7백50번의 주요 근육이 움직이고 7백만 개의 뇌세포가 운동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돌프빈더」박사의 연구논문에서는 무게 60kg의 인간을 물질로 환산하면 그 값은 겨우 2달러 98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비누 17개분의 지방, 성냥 3백개 묶의 인, 1.8들이 돌병 20개분의 수분, 못 한 개의 철, 곡그릇 크기의 石炭, 연필 2백개분의 탄소, 구두 2개의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의 소금 등이 있다. 그러기에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사람의 값이 물질로 따져 2달러 98센트밖에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 어느 하나 존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價値는 우주를 주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남의 人格, 남의 生命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심장 하루에 10만3천번 뛰고 1억6천8백 마일 혈관에 피를 공급
숨은 하루에 2만3천 쉬고 4백38m³의 공기를 마시며 2만5천 마디의 말을 한다.

다. 우리의 눈은 하나의 안구에 1억 만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30만개의 회로로 되어있어 물체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구분한다. 귀도 마찬가지다. 한 대의 피아노는 키보드가 88개 있지만 귀에는 1천5백개의 키보드가 있다. 몸의 중심

正 論



權 泰 貞 (공사11기)
○ 大·慶 보라매 회장

우주의 모든 생물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섭리이며, 세월의 흐름은 모든 생물의 모습을 추하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노후가 외관상은 그렇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추한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아름다운을 재창조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인간사 누구나 한번쯤 화려한 추억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나 양로원을 비롯한 곳곳에 노인들의 모습에서는 멋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노후가 멋있게 보이는 것

인 수명을 고려하여 77세에 생을 마감한다는 한계선을 긋고 생활하고 있다. 다소 엄중한 소리라 들릴지 모르나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70평생을 살아온 모든것에

노후를 멋있게 살려면

은 비단 경제적인 여유나 명예만 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 아니다.

여기서 용기있는 해답을 제외한 대만 출신인 구영한 씨의 새로운 발상을 소개하면서 다같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바라는 마

대하여 미련을 떨쳐 버리고 자기 주변을 계획적으로 하나씩 정리할 수 있으며, 생에 대한 막연한 애착보다 노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라 200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 점유율

어느곳을 가든지 추한 모습의 노인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노익장들의 모습이 시야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음이다. 구씨는 일본에서 학부를 마치고 제테크에 전문가로 시작하여 기업경영으로 크게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저서도 남긴 기업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신은 인간의 건강진단과 조상의 유전적

이 10.7%에 이르면 480만이라는 노인인구가 탄생되는 시점이 되며, 어느곳을 가든지 추한 모습의 노인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노익장들의 모습이 시야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1997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本會 會則 第13條에 의거 1997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空士同門들께서는 大망하시더라도 勿디 參席하시어 本 同窓會 發展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日 時 : 1997年 6月 18日(水) 18:00
2. 場 所 : 空軍會館
3. 主要議題 : ① 5次年度 會長 選出
② 4次年度 會務報告
③ 歷代 會長의 禮遇 問題
④ 本會 別稱 問題
4. 其他事項 : ① 參席 會費는 없음.
② 參席한 同門들간의 親交를 위한 간소한 자리를 마련
③ 참석할 수 없는 理事님과 期生會長은 必히 첨부한 委任狀으로 應信바랍니다.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I. 第4次年度 業務日誌(要約)

- 7. 1. 업무 인수
- 회비 총액 : 34,095,861원 → 1년 저금(조흥은행 신길동지점)
- 회장 찬조금 : 1천만원入金
- 7. 2. 공군 참모총장 회장 취임인사 전화
- 공군 사관학교장 회장 취임인사 전화
- 해군 육포회와 업무타협
- 7. 3. 공사박물관장 업무협조 의뢰
- 歷代 校長 名單(空士出身), 各 期生會 會長 名單
- 7. 4. 歷代 空士校長 人事 啓信(기금 1백만원 제출)
- 7. 5. 空軍參謀總長(李光學) 人事 來電
- 國防日報 定期구독 신청
- 月刊 軍事世界 편집장 訪問(李勝熙)
- 各 期生會長에 對한 會長 人事狀 送付(40枚)
- 歷代 空士校長 人事 啓信 發送(기금 백만원 기탁)
- 7. 8. 4기생 부인회 來訪(화분 1점 증정)
- 7. 11. 3次年度 任員 會費 未納者 목록 서신 20名 발송
- 7. 15. 徐東烈 將軍 來訪
- 軍 私組織에 對한 문의(국방부, 해군)
- 7. 18. 各 種 봉투 大·中 各 1,000枚와 小 2,000枚 受領
- 명함 600枚 受領(永進 印刷所)
- 7. 20. 전화요금 자동납부 신청(동작동 전화 전신국 845-0200 최은영)
- 7. 23. 각 기생회장 진치법 장군 모친상 연락
- 국방일보 배포 개시
- 7. 27. 사무실 환풍기 설치(복지지원단)
- 7. 30. 호국정신 선양운동 서명 명부 접수(항공조 제1060호)
- 7. 31. 玉浦會 總務 訪問(金成日 해사 16기)
- 8. 1. 복지근무지원단장 예방(권명남 준참)
- 8. 16. 각 기생별 회장(1기~20기)에게 배지 의견 공문 발송
- 8. 17. 美 洲 東 部 總 同 窓 會 李 煥 錫 會 長 的 서 信 接 수 <美 洲 地 域 的 會 員 住 所 錄>
- 8. 21. 동창회 가운 써주기 운동 전개에 따른 문의
- 서예가 김방부(대구 053-959-2802)
- 호국정신선양운동 설문지 작성 송부(재항공인회)
- 8. 22. 전춘우(6기) 장군 찬조금 50만원納入
- 8. 26. 同 門 家 訓 써 주 기 公 문 송 부 (인원전원 102부)
- 9. 3. 張志良 前 參 謀 總 長 來 函 (송부는난 보급 의뢰)
- 9. 4. 윤자경 전총장 방문
- 9. 5. 사관학교 교장 방문(사관학교 발전계획 청취, 총동창회
- 장상 수여문제 논의)
- 9. 6. 공본 비서실 주미회원 명단 송부(FAX)
- 9. 12. 각종 참고자료 수집 정리
- 9. 13. 가운 써주기 신청 9명
- 국가 안보법 개정 찬성 원고작성
- 9. 23. 배지 제작 완료 1,800개
- 9. 30. 배지 동창회 기수별로 배분 1,539개
- 10. 4. 경성회비 납부서 작성
- 10. 7. 사관학교 동문명부(여역편) 1,039부 수령
- 空士總同窓會報(3號) 2천부 수령
- 10. 9. 회원명부, 신문, 배지 기생별 포장
- 이회근 장군 모친상 전기생회장에게 통보
- Air Show 초청권 100매 수령(기별로 배포)
- 소형 봉투 2천매 인쇄
- 10. 30. 공사총동창회 회장 박웅진 詩碑 建立(積善 現代 公 頌)
- 11. 1. 空士 基金 造成 問題點 여론 취합
- 11. 22. 理事會 開 催 公 文 發 送 (105명 이사 전원)
- 11. 26. 丁海暎(1기) 원고 제출차 방문
- 12. 4. 空士 8기 입원개선
- 부회장 : 白相熙
- 이 사 : 李相進 張正孝 吳世德 金元述
- 12. 5. 空士 6기 입원개선
- 부회장 : 全春雨
- 이 사 : 朴根泰 許恒茂 李秀烈 李潤雨
- 12. 6. 공사총동창회보(제4호) 수령 배포(2천부)
- 공산과장 김용성 대령(호 3740)
- 12. 11. 1996年度 空士總同窓會 理事會 및 送 年 的 的 夜 開 催
- 12. 16. 會 長 國 군의 訪 翁 送 年 的 的 夜 開 催
- 12. 30. 1996년 중무식
- 1. 6. '97년 시무식
- 1. 7. 공사총동창회보(제4호) 수령 배포(2천부)
- 八進會(공사 8기) 임원 교체 - 회 장 : 조현호
- 부 회장 : 임철백, 김도식
- 총 무 : 장정효
- 1. 9. 사무실 협광등 12개 교체(시설대대)
- 1. 17. 공군 신년 교래(18:30 공군회관)
- 1. 21. 丁海暎(1기) 책(3권) 기증
- 「힐링 날아가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 「군사논단(97 겨울호)」 각 기생회장에게 21부 송付
- 1. 22. 空士 5기(신성회) 임원 개선
- 회장 : 박웅진, 부회장 : 나병순, 총무 : 최홍선
- 空士 優秀 卒業生 徒 에게 수여하는 總同窓會會長 賞 見本

- 2. 4. 接受
- 전국방부장관 李養錫 面會(서울 구치소)
- 2. 26. 공사 총동창회보 발간 신청 계획서 발송
- (인참부 행정처장(土總 4-18호))
- 2. 28.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직인 제작
- 공사 우수 졸업생에 대한 공사총동창회장의 표창 수여문
- 제 타결
- 3. 14. 공사 제45기 졸업식 참석
- 공사총동창회장 상패 수여(수령자 김기호 소위-조종)
- 공사총동창회보(제5호) 2천부 수령
- 3. 17. 관악구청장에게 詩碑 건립 신청문 제출
- 시령 : 오승걸, 작자 : 박웅진, 장소 : 관악산 입구
- 3. 18. 5차년도 회장단 업무파악차 방문
- (박용태, 최홍선, 이병직)
- 4. 5. 공사총동창회장 및 공사 4기 입관 40주년 기념 식수
- 수종 : 목련(15년생) 2그루(2백만원)
- 4. 7. 공사 29기 전역한 동문 전원(27명) 평생회비 일금
- (감사편지 발송)
- 4. 25. 新 星 會 (6기) 臨 時 總 會 開 催
- 空士總同窓會의 5代 任 員 選 出
- 會 長 : 朴鎔 泰
- 副 會 長 : 朴容 稷
- 理 事 : 成 甫 慶, 李 源 錫, 韓 弼 淳, 崔 泓 錫
- 監 事 : 李 炳 燮
- 後 援 運 營 委 員 : 新 星 會 任 員 全 員
- 事 務 總 長 : 裴 容 求 (6기)
- 6. 14. 공사총동창회보 제6호 발간
- 6. 18. 제4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II. 第4次年度 任員會費 現況(97.5.現在)

納入者	金額	納入者	金額	納入者	金額
1期生		趙長成(理事)	100,000	金正麟(理事)	100,000
		金舜經(理事)	100,000	崔奎淳(理事)	
2期生		金泰哲(理事)		吳世一(理事)	100,000
		邊普基(理事)		李文煥(理事)	
3期生		孔思彦(理事)	100,000	高承萬(理事)	100,000
		金鍾勳(理事)		鄭奎赫(理事)	
4期生		金在珉(副會長)		丁鳳錫(理事)	
朴相朝(理事)		梁錫鎔(理事)		洪義台(理事)	
5期生		朴鎔泰(副會長)	200,000	朴容稷(理事)	100,000
尹春鎰(理事)	100,000	崔泓錫(理事)	100,000	李在雨(理事)	
6期生		全春雨(理事)	200,000	李潤雨(理事)	100,000
朴根泰(理事)	100,000	許恒茂(理事)	100,000	李秀烈(理事)	100,000
7期生		郭永達(副會長)	200,000	金亨烈(理事)	100,000
吳學洙(理事)	100,000	金仁壽(理事)	100,000	金正守(理事)	100,000
8期生		白相熙(副會長)	200,000	張正孝(理事)	
李相進(理事)		吳世德(理事)	100,000	金元述(理事)	
9期生		朴鍾勳(副會長)	200,000	韓都範(理事)	100,000
權赫達(理事)	100,000	金明洙(理事)	100,000	崔一永(理事)	100,000
10期生		李秀吉(副會長)	200,000	金在達(理事)	100,000
金漢龍(理事)	100,000	金祥海(理事)	100,000	金萬圭(理事)	100,000
11期生		李泰植(副會長)	200,000	金錫崑(理事)	100,000
安柄文(理事)	100,000	安柄和(理事)	100,000	明英男(理事)	100,000
12期生		裴基俊(副會長)	200,000	全大禹(理事)	100,000
鄭敏男(理事)	100,000	朴昌吉(理事)	100,000	崔大植(理事)	100,000
13期生		孫德圭(副會長)		李鎔大(理事)	
金英夫(理事)		李勝大(理事)		安柄哲(理事)	
14期生		朴鍾洙(副會長)	200,000	韓龍吉(理事)	100,000
金世榮(理事)	100,000	朴正九(理事)	100,000	閔信雄(理事)	100,000
15期生		朴邦弘(副會長)		曹國鎰(理事)	
權基東(理事)		金聖德(理事)		엄익준(理事)	
16期生		吳昌模(副會長)		咸鍾河(理事)	
金灰東(理事)		康明植(理事)		박성국(理事)	
17期生		宋大晟(副會長)		俞賢俊(理事)	
魚秀淵(理事)		張基善(理事)		鄭求鎬(理事)	
18期生		尹管重(副會長)		吳仁成(理事)	
金杜淵(理事)		尹在勳(理事)			
19期生		片世榮(副會長)		丁成鐵(理事)	
金煥萬(理事)		庾炳權(理事)		전제구(理事)	
20期生		金永柱(副會長)		韓俊洙(理事)	
李四龍(理事)		崔秀信(理事)		임성남(理事)	
21期生		朴京石(副會長)		金泰煜(理事)	
		鄭東熙(理事)		황사홍(理事)	
22期生		崔武烈(副會長)		宋錫鳳(理事)	
		孫重烈(理事)			

會 期 末 未 完 會 費 未 納 任 員 納 入 要 望
 入 金 口 座 : 372-04-241378(박웅진) 조흥은행

Ⅲ. 平生會費納入한 同門들

- △ 白慶煥 (1기) 10만원
- △ 姜然直 (1기) 10만원
- △ 金舞輝 (1기) 10만원
- △ 金龍珠 (2기) 10만원
- △ 金判石 (2기) 10만원
- △ 文國珍 (2기) 10만원
- △ 吳世一 (2기) 10만원
- △ 朴文基 (2기) 10만원
- △ 朴根五 (2기) 10만원
- △ 高承萬 (3기) 10만원
- △ 金慶福 (3기) 10만원
- △ 金仁基 (3기) 10만원
- △ 沈煥章 (3기) 10만원
- △ 李明完 (3기) 10만원
- △ 嚴龍植 (3기) 10만원
- △ 李仁行 (3기) 10만원
- △ 鄭奎赫 (3기) 10만원
- △ 曹博賢 (3기) 10만원
- △ 趙沼夏 (3기) 10만원
- △ 金慶燮 (3기) 10만원
- △ 張東俊 (3기) 10만원
- △ 崔恒基 (3기) 10만원
- △ 李景永 (3기) 10만원
- △ 李鍾學 (3기) 10만원
- △ 孔惠彦 (3기) 10만원
- △ 朴雄鎭 (4기) 10만원
- △ 梁承文 (4기) 10만원

- △ 李時雨 (4기) 10만원
- △ 趙慶來 (4기) 10만원
- △ 金溶柱 (4기) 10만원
- △ 徐東烈 (4기) 10만원
- △ 成甫慶 (5기) 10만원
- △ 安錫熙 (5기) 10만원
- △ 李炳鏞 (5기) 10만원
- △ 張箕鏞 (5기) 10만원
- △ 鄭在植 (5기) 10만원
- △ 全潤洙 (5기) 10만원
- △ 李俊洙 (5기) 10만원
- △ 崔泓善 (5기) 10만원
- △ 朴炳九 (5기) 10만원
- △ 尹春鎭 (5기) 10만원
- △ 金鍾仁 (5기) 10만원
- △ 朴容稷 (5기) 10만원
- △ 李源天 (5기) 10만원
- △ 姜容求 (6기) 10만원
- △ 朴根泰 (6기) 10만원
- △ 李善國 (6기) 10만원
- △ 全春雨 (6기) 10만원
- △ 李潤雨 (6기) 10만원

- △ 金元根 (6기) 10만원
- △ 鄭用厚 (6기) 10만원
- △ 李載奎 (6기) 10만원
- △ 金錫熙 (6기) 10만원
- △ 姜尚道 (7기) 10만원
- △ 金俊雨 (7기) 10만원
- △ 鄭相逸 (7기) 10만원
- △ 鄭錫錫 (7기) 10만원
- △ 郭石泰 (7기) 10만원
- △ 金植東 (7기) 10만원
- △ 金國璋 (7기) 10만원
- △ 金道植 (8기) 10만원
- △ 金東菴 (8기) 10만원
- △ 鄭松采 (8기) 10만원
- △ 李相進 (8기) 10만원
- △ 金永福 (9기) 10만원
- △ 愼都範 (9기) 10만원
- △ 崔一永 (9기) 10만원
- △ 金完泳 (10기) 10만원
- △ 金潤珠 (10기) 10만원
- △ 朴根燁 (10기) 10만원
- △ 李泰植 (11기) 10만원

- △ 崔東煥 (11기) 10만원
- △ 朴春澤 (12기) 10만원
- △ 裴基俊 (12기) 10만원
- △ 李鍾得 (12기) 10만원
- △ 李鍾洋 (12기) 10만원
- △ 李洪雨 (12기) 10만원
- △ 배양일 (12기) 10만원
- △ 李相京 (12기) 10만원
- △ 禹大錫 (12기) 10만원
- △ 鄭敏男 (12기) 10만원
- △ 洪鍾健 (12기) 10만원
- △ 李鍾大 (13기) 10만원
- △ 張德守 (13기) 10만원
- △ 柳根宇 (13기) 10만원
- △ 姜容得 (14기) 10만원
- △ 朴주식 (15기) 10만원
- △ 최용환 (15기) 10만원
- △ 金大福 (15기) 10만원
- △ 고종우 (17기) 10만원
- △ 김철생 (29기) 10만원
- △ 박성기 (29기) 10만원
- △ 송창석 (29기) 10만원

- △ 오한두 (29기) 10만원
- △ 이광식 (29기) 10만원
- △ 이일수 (29기) 10만원
- △ 정남범 (29기) 10만원
- △ 김경호 (29기) 10만원
- △ 최상철 (29기) 10만원
- △ 홍상기 (29기) 10만원
- △ 이규복 (29기) 10만원
- △ 이병두 (29기) 10만원
- △ 나충렬 (29기) 10만원
- △ 심재관 (29기) 10만원
- △ 오승준 (29기) 10만원
- △ 홍승조 (29기) 10만원
- △ 김석중 (29기) 10만원
- △ 김원규 (29기) 10만원
- △ 심동환 (29기) 10만원
- △ 최승철 (29기) 10만원
- △ 최성진 (29기) 10만원
- △ 김영빈 (29기) 10만원
- △ 오영민 (29기) 10만원
- △ 윤주혁 (29기) 10만원
- △ 홍재국 (29기) 10만원
- △ 이창근 (29기) 10만원
- △ 김영철 (29기) 10만원
- △ 金元圭 (30기) 10만원

母 軍 · 母 校 短 信

空軍參戰會 江陵, 泗川 慰靈祭 開催

道察行事 및 民·官·軍 Air Show, 그리고 공군 合同 安保 決意大會를 開 軍악대와 의창대의 시가행 催하고 이어서 시민을 위 進, 저녁에는 공군군악대

의 시민위안의 밤을 열어 많은 민·관·군의 유대를 보 다 돈독히 하였다.



강릉 위령제에서 추모사를 하는 玉滿鎬 會長



泗川 위령제가 끝나고 市民을 위한 에어쇼 장면

空士 45期 卒業 및 任官式

대통령 상 김중수 소위(조종특기)
총동창회장상 김기호 소위(조종특기)

지난 3월 1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국의 하늘을 지킬 공군사관학교 제45기 졸업 및 임관식이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김동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 외 교사절 등 많은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성무대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아래 4년동안의 어려운 교육과 훈련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앞으로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열어가갈 주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공군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을 준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공군은 어떠한 기술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기를 연마하고 대비태세를 완벽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공군력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어떤 전력보다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군력은 유사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선풍

군사력이다」라고 강조했다.

3군 사관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선발된 여생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성무대에서 갈고 닦은 불굴의 투지와 지혜로 21세기 공군을 이끌어 갈 훌륭한 보라매가 되기를 당부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총주교 출신의 김중수 소위가 받았고 국부총리상은 조종석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규성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전승원 소위, UN군사령관상은 이우영 소위, 공군사관학교장은 한수철 소위가 받았다.

우천관계로 졸업식이 끝난 후 성무문화관에서 거행된 2부 행사에서는 계급 수여식과 함께 제교생이 졸업선배들에게 주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중수 신임 소위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丁海暎(공사기)
○ 민주평등자유위원회

태극의 원리로 통합될 우리 겨레의 꿈

태극은 아름답다. 만물의 근원을 그림으로 나타낸 상징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우주를 뜻하는 하나의 원을 양과 음으로 이등분하여 양을 붉은 빛으로 음은 남빛으로 흰 고리모양의 무늬가 머리부분을 서로 엮물고 돌아가듯이 보여 생동감이 넘친다.

더구나 이를 돌로 같은 색끼리 갈라 봐도 마치 태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결의감과 함께 생명력 있는 문양으로 애용되어 옛물살의 옥보석 장식품으로 현란하게 전해움을 자부하게 된다(곡옥). 한편 태극기는 그 네귀에 검은 색으로 乾坤坎離(건곤坎리)를 그려 넣어 국기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어진 조상님들의 지혜가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태극의 조화된 아름다움에다가 마치 피아노의 건반 같은 다양한 가락을 사방에 그려 넣어 화음까지 내게 하려는 숨은 뜻의 필립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만국기를 들여다 봐도 우리 태극기만큼 우주적이고 생명철학적이며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도 아름다운 국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예로 공산권의 낫과 망치를 그려 넣은 별볼품없는 국기들이 대부분 내려지고 겨우 잔재만 남아 있는 셈이지만 일본의 일장기 하나만 보더라도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원이 하나 있을 뿐 매우 단순하고 흰색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다(태양신 숭배).

한편 서구권의 선진 모델인 시민혁명의 산물로 자랑하는 불란서의三色旗를 보아도 평면적인 원색의 조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고 있을 뿐임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상대적인 심오한 뜻과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서는 이를 꽃피우지 못하고 분단반세기를 훌쩍 넘어서게 한 이유란 무엇일까?

더구나 원래 한 형제이던 우리 겨레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대결과 반목과 불신과 적대시로 일관해 온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내리면 남한은 경제력이 발만대고서 당장은 배가 부르다 보니 주체성(민족사적 정체성)을 잃게 되어 부패하였고 북한은 낡은 주체사상 우상화만 중요하다 보니 경제가 피폐해져서 인민대중은 굶어 죽게 될 판국이 다(자유와 인권의 부재).

최고해 보면 역사적인 8·15 해방 후 주권이 두 갈래로 회복된 이래 세사적 시대물결의 대결장이 되어 6·25 남침이라는 전란이 자초한 패허 위에서 그래도

식민지 굴레를 벗은지라 자주적으로 하면 제법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왔는데 삼기한 바와 같은 대결구도로는 남북한 공히 그 한계점에 다다른 셈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나 개인이나 비대중에 걸리면(물리적 병영) 주체성이 허약해져서 안일과 부패와 혼란에 빠져들기 십상이고 그런다고 무조건 주체성만 고집(날조된 우상화 체제)하다 보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바보가 되어 피폐해짐을 면할 길이 없어지는 이치이다.

따라서 국내문제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재통합 문제는 여태까지의 대결구도가 아닌 청산구도로 풀어야 하며 화합과 조화와 화음의 연주로 갈채받는 슬기를

군부주도의 호전적인 북한독재체제라 하더라도 그 심장부를 뒤흔드려내 보인 작금의 상황에서 무모한 남침도발을 재연하지는 못하게 만든 셈이다.

둘째, 문화적으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현실임(음악, 체육, 등산, 문학, 예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참여로 더욱 보강되고 원숙해질 수 있는 출구가 환하게 열리는 시련함을 공유할 날이 최우선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가며 마련이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민족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여백은 그만큼 유리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투영될 수 있어

고 북한의 국토와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세계화에 눈뜬다면 얼마나 다정한 일이겠는가.

6,700만에 달하는 3·1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음악의 생산원리로 재통합되는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날 경제는 부양되고 살기좋은 한반도로 세계인의 각광을 받게 할 것이다(세계 평화에 기여).

다섯째, 우리민족의 재통합 문제는 특유의 사색에서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일지도자들 조언에 의하면 저들이 지불한 시앤향을 거들삼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으리라 는 지적이다. 우선 남한내부의 주체성부터 회복해 가면서 정적이 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내실있게 보여주는 일에 성공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기강을 바로세워 나가며 돈 안돌고 대화로 푸는 정치를 통해서 북반도포들의 마음의 문까지 열어간다. 이렇듯 태극의 원리와 태극기의 상징성은 우리 민족 공유의 주체성 확립의 근원으로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기동임이 자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허겁지겁 UN에 가속으로 가입한 북한이 적어도 세계적인 시각에서 체제경쟁을 일삼을 만큼 착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북한이 동독 군부의 해체과정을 연구시키고 있다고 한다. 기아를 면하려는 자주책이 군부축소로 이어진다면 남북문제의 청산구도는 유연해지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배가 부르면 주체성이 약해지고 억지로라도 주체성만 내세우면 역시 죽게 된다는 이대칭적 모순과 파행적 나라에서 깨어나 "태극의 원리로 통합될 우리겨레의 꿈"을 꽃피워 나간다면 돈드는 정치에서 비롯된 부채가 없어지고 조상전래의 민족사적 정통성(주체성)을 이여갈 통일조국의 앞날은 밝아그만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걸으로는 부강해 보이지만 총리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55%가 비관적이며 일본국민 과반수가 그 장래를 어렵게 본다는 최근의 보도도 참작한 필요가 있다(배금주의, 공무원 비리 등에 염증).

비록 우리 배달민족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분단의 명에는 전통을 무시하고 제정신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패역의 결과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를 복원하려는 발단은 소원이 매아리 치게 된다면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밝은 미래를 가진 한민족의 구성원임을 노래부르게 할 것이다.



태극원리에서 찾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 본다.

즉 음양의 상함으로 새 생명체를 창조해 내듯이 증오와 저주와 타도가 아닌 더불어 사는 인간애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비전을 발전시켜 가면서 감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우리민족이 조상전래의 문화민족이요 평화애호민족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문체의 핵심은 부패를 몰아내고 자유와 인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민족공유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의 파타다임을 착실히 그려가면 되는 것이다.

다섯째, 황장엽 비서의 망명명분에서 설명해 주듯이 우리 배달민족을 살리는 일이 지상과제이므로 이북의 진정도발과 이남의 극한 데모를 막고 화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민족생존의 초미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력하나마 헌신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 주면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비록 6·25 남침의 전과가 있는

서 온 국민의 사기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셋째, 국방비를 줄이고 통일비용에 그만큼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해지므로 온 국민의 사기는 높아지고 참보는 더욱 절제화 될 수 있어서 신바람이 날 것이다.

이상호 대위가 MIG 19기를 몰고 귀순한 사례에서 읽을 수 있듯이 동족에다 대고 총부리물 겨냥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바보스러운 일인가를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늑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상은 대위가 MIG 19기를 몰고 귀순한 사례에서 읽을 수 있듯이 동족에다 대고 총부리물 겨냥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바보스러운 일인가를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늑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넷째, 경제적으로 파격적인 호조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서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살길이 절로 열린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소모나 시간과 물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 남북 공히 경제의 환성화로 신바람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최적의 투자선인 북한은 뇌두고 생산환경이 열악한 해외로 투자한 기업이 그 얼마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이 그 얼마인가. 그리

軍事研究

軍事文化에 대한 省察



徐 鎮 泰(공사8기)
○ 政治學 博士
○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1. 서 언

지난 수십년 동안 「軍事文化」는 참으로 핫도 많이 들었다.

우리의 어떤 非民主的인 관행을 지적할 때는 언론이고 지식인이고 북하면 「軍事文化」를 들먹였다.

그럴때마다 필자는 혼자서 분통을 터뜨리고는 했다. 우리를 길러 낸 "우리의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교육을 받고 우리가 평생을 바치고 있는 공군의 문화가 그렇게 허술하게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지고는 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또한 그럴때마다 필자는 언제나 「軍事文化」의 진가를 세상에 말해 보려 했다.

여러 시점에서 논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통상 군대와 민간사회가 다르다고 생각되어 있는 분야인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군사문화와 정치

정치는 사회 전체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장군 출신들이나 사회 전체가 군대식이 된다는 생각의 일변도에서 모두 말하고 있을 뿐, 그 정치군인들이 부족한 정치인들이기 이전에 얼마나 非軍人의인 사람들이었나를 살펴 말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까지 군이 뒤집어쓰고는 「軍事文化」 자체가 오해받고 卑下되었다.

군인답지 못한 군인들이 정치지도 하는 방식이 어떻게 군대식인가? 도대체 군인답지 못한 지도자가 어떻게 군사문화화를 대표하냐?

그들의 부패와 부정이 일으키는 병리현상을 어떻게 군사문화화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군사문화화를 형성하는

군인의 군인다운이란 어떤 자질인가를 논증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가는 권력을 얻어야 하고 사업가는 부(富)를 얻어야 하는데 군인은 존경을 얻어야 한다는 정치학자 SAMUEL P. HUNTINGTON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주: 1).

물론 돈과 권력은 현실 속에서 최고의 가치다. 인간간의 선(善)한 理想도 私적인 욕망도 주로 이 두 가치를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한 이상과 사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 속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다는 사람들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간 의 사상, 제도, 교육, 훈련은 모두 우리의 욕망을 문명적 이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 일인가는 이 두 욕망의 결과와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얼마나 무상했던가를 자주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이 권력과 돈의 속성이다.

권력의 속성은 소설가 嶽水山 씨의 말을 빌리면서, 「그 어떤 순결한 이상도 권력의 옷을 걸칠 때는 덧없이 때려올 간다. 언제나 써여가며 스스로 멸망하고 다른 시대의 거름이 된다...」는 것이고(주: 2), 돈의 속성은 사람의 욕심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오고가며 그 앞에 사람을 쉽게 허수아비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권력과 부(富)에 대해서 단순하게 가르치기를 권력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功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돈은 많은 사람의 삶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 했을 것이다.

HUNTINGTON 박사도 돈과 권력의 이러한 속성을 알기 위해, 그리고 군이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힘의 의미를 알기 위해 군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군 지휘관의 「과우어」는 정치가처럼 얻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책략과 수단을 꾸며야 하지만 군 지휘관은 솔직, 단순하고 구구한 꾸밈을 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인격을 쌓아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군인은 단순과

정직의 문화인이다. 그것이 때로 세련되게 표출되지 못하여 흠이 되는 것도 존경받지 못하는 장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故 「라빈」 장군은 수상직에서 그가 행한 말과 행동이 언제나 군인이었다. 「팔레스타인」측과 평화협정을 맺을 때도 정치가적 수사를 쓰는 일이 드물었다. 「우리는 피차 미워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하고 우리도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할 모양이다...」라는 식이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으로서 그리고 다년간의 정계와 외교계에서 쌓은 「라빈」수상의 깊고 넓은 식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 티를 벗지 않았고 그의 그런 점을 마땅하게 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다. 그가 받고 있는 존경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라면 정치 아니라 그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조직을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하게 퇴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것은 군인이 정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군인이라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몸배겨 되는 군 지휘관의 권위 의식이 겨우 권력과 돈을 동일시하는 착각으로 행사되어 군인다운 장관만이 할 수 있는 정치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3. 군인과 민주주의

군인은 위계질서에 의존하고 지휘관의 권위에 복종하며 개인적인 창의보다 집체적인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군대와는 다르다고 해서 橫적인 다수결 원칙과 구성원의 자율기능에 서만 이루어지는 그렇게 단순한 사상과 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主權在民의 정신이 전제가 되어 있을 뿐 깊고 넓고 복잡한 사회상이며 제도이고 개인의 철학이며 형태라는 것을 현대 정치학은 가르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권위적 개성 때문에 무너지는 허망한 꿈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군에는 다수의 원리와 자율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도 잘못이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과 태도가 일반 사회와 다를 뿐이다.

직업군인은 국민 전체를 고객으로 삼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여 계속 교육받고 실천하며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유일한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성장한 장군이 어떤 출신이든 타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 날의 장군출신들이 우리 정치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한 것은 오히려 군인다운 지도자가 못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말이다. 군인이 군인스럽지 못한 곳에 무슨 군사문화인가?

어떤 역사학자가 논평하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사회지도층이 천박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고 1980년대처럼 「휴먼웨어(人的眞實)」가 하락했던 때도 없었다고 한다(주: 3). 필자가 현역장군 시절을 보낸 시기이다. 수많은 일들이 머리속을 스쳐간다. 많은 지휘관들이 도덕적 기준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조직이 서서히 가치규범을 잃는 현상을 보았다.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 지휘관이 권위가 될 수 없으니 그의 지휘권은 권력의 원로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휘관의 원 또는 조직을 「아노미(Anomie)」적 병리현상에 젖게 하고 결국 유능한 인재들은 不安, 自己喪失感, 無力感 등의 심리적 「아노미」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휴먼웨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군인이 민주주의를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이든 군대이든 그 어떤 조직도 지도자가 부패와 부정과 무지에서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 반면에 침략하고 유능한 지도자라면 그가 민간인이든 군인출신이든 권위주의의 비난을 받을 경우라도 해독 민주주의의 올바른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심가포르」의 李光耀 수상과 「스페인」의 후람코 장군이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이다.

4. 군인과 시민사회

군인의 직업에는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한 도덕성이 요구되어 있다. 군인은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

극히 단순하고도 통일된 교리를 지닌다. 종교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며 조그 작은 모든 규모의 조직관리와 지휘를 경험하면서 장군으로 성장한다.

사회가 물량적으로 크고 더욱 역동적이 되고 복잡해질 때는 오히려 훌륭한 장군이, 군인다운 장군이려면, 누구보다도 무패한 사회를 정확히 시키며 기강을 세우고 특정한 문화의 바탕을 세울 법한 것이다.

군 지휘관은 조직을 縱으로 세우는 힘을 알고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縱으로 세우는 힘, 민주주의는 평등한 시민사회라고 해서 이 가치를 무시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잘 안되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회가 縱으로 세우는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橫으로 쌓이며 확대되는 활동은 縱으로 세운 기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도덕이며, 법이며, 관습이며, 교양이라는 총체적인 가치관이다. 이 가치관이 한 사람에게, 즉 모든 지휘관 개개인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이 군이라는 직업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한다. 법의 지배라는 것이 실제 일로 쥘 위험한 현상은 법적으로 하지(假託)한 가치관이다. 사회정의는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합의 사항 정도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법은 결국 도덕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에 법의 지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법정에 앉아 있는 재판관은 그가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권위의 바탕이 그의 법에 대한 지식 이전에 그의 도덕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문이라는 매개도 없이 순수하게 전권을 쥐고 있는 군 지휘관에겐 조직을 살리는 힘이 첫째 그의 도덕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부도덕한 지휘관 밑에 도덕적인 부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공군대학의 「리더십」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등 민주주의가 지녀야 할 사회의 力動性은 橫적인 분화작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縱적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통

(6면에서 이음)

일된 규범과 가치관으로의 중심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 진실은 비민주주의적이다. 하면서 일부 언론인, 지식인들이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비하하는 군사문화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는 것이다.

군사문화의 원형은 한 개인이 책임자로서 지닐 수 있는 인간적 理想의 최고의 것이며 집단으로 표출될 수 있는 지고(至高)의 힘이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금년 4월 27일부터 사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의 참례를 위한 단체장회의(a presidents' summit for America's future)라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800개의 각종 단체의 책임자들이 모여 미국 시민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회문제를 시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데 이 활동을 위한 최고 책임자는 미국 합참의장을 지닌 「콜린·파월」 예비역 대장이라고 한다 [주 : 4].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수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쭙서 장군출신을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지도자로 선택했는가? 이 소식을 전하는 미국 언론은 미국 시민문화가 군대식 집체 (regimentation)와 계급주의 (hierarchy)를 저항하고 또한 현대 경영기법도 「피라미드」식 지휘계통을 탈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사민조직은 군인으로서 쌓은 「파월」 장군의 경험과 「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비영리조직으로 소비 집단인 군대는 목적의 달성과 그 과정에서 창출해야 되는 생산성의 극대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집단도 따라갈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사업의 목적이 자기자신이나 가족 또는 우리 회사가 아닌 전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평생을 군에서 보낸 장군

이 아니면, 누가 지도자가 되겠는가 싶기도 하다.

군 지휘관 시절에 유명해진 그의 교리(The Powell Doctrine)는 미국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대처하는데 꼭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주 : 5]. 회의가 끝나면 단체장들은 200여개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린이를 지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시키는 문제라니 더욱 인상적이다 [주 : 6].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파월」 장군이 대답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완전히 군대적이다. 기자는 오히려 여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파월」 장군은 미국시민이 군대에서 배워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면 군대의 「팀워크」, 엄격한 기준 그리고 군인의 사명감을 언급하는 것이대 [주 : 7]. 미국 같은 고도의 민주주의 사회가 수천개 단체의 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활동 조직체를 군사문화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5. 결 언

지금까지 필자가 고찰한 것은 군사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핵심가치를 상실할 때의 국가적 위험과 지켰을 때 빛날 수 있는 결과를 논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우리의 경우 군사(공군) 문화의 구성요소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다짐한 空士十訓에서 시작된다 [주 : 8]. 이제 우리는 「空士十訓」의 참정신과 태도를 상실한 나머지 버릇은 공군문화가 아니다. 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모두의 자세를 다듬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정규사관 출신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주 기

1. "..... the businessman may command more income ; the politician

may command more power, but the professional(soldier) commands more respect."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London, England: Belknap Press, 1985), p. 7.

2. 한수산, 진흥과 갈등 (중앙일보, 1992), p. 166.

3. 이동철, "삼국 통일과 한국 통일 : 문화적 과제와 전략" 김용욱(편), 삼국 통일과 한국 통일 (상권) (한국사상사연구소, 1995), pp. 256~267.

4. David Gergen, "Opportunity knocks : Philadelphia summit issues a new call to national service." U.S. News & World Report 122 : 13 (April 7, 1997), p. 80.

5. "Define your objective. Bring massive force to bear. Take on only those battles you are sure you can win, and line up public support before you start." 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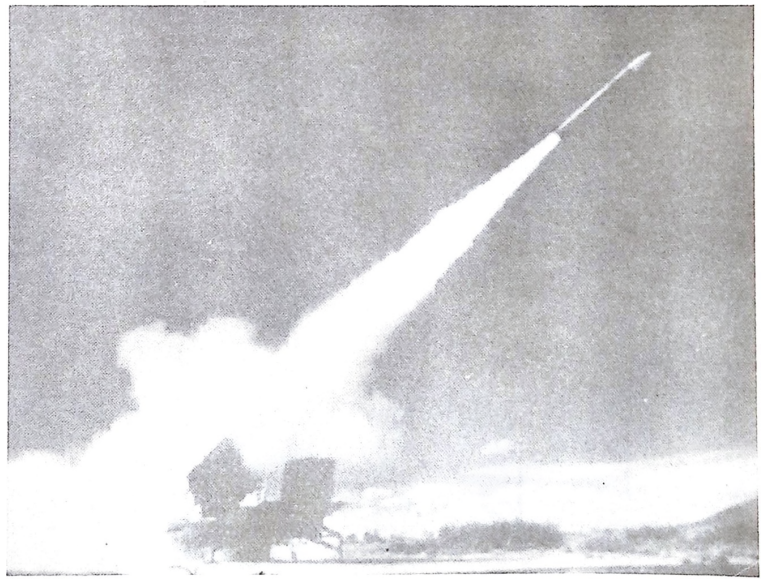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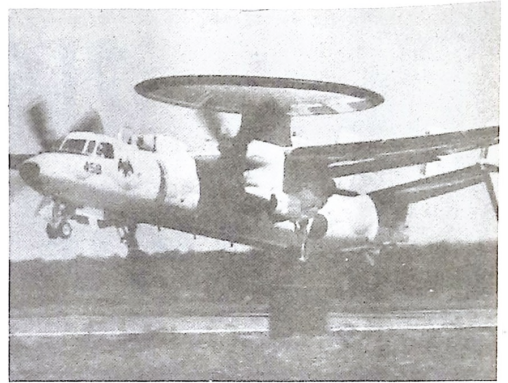
neth T. Walsh, "The next Powell doctrine," U.S. News & World Report 22 : 14(April 7, 1997), p. 9.

6. David Gergen, "Opportunity knocks : Philadelphia summit issues a new call to national service," U.S. News & World Report 122 : 13 (April 7, 1997), p. 80

7. "Structure, discipline, care, a healthy start, a trade, reinforcement with rewards and medals and

recognition, and punishment if you don't follow our standards. Much of that is transferable over into civilian life." Kenneth T. Walsh, "The next Powell doctrine," U.S. News & World Report 122 : 14(April 14, 1997), p. 9.

8. 容儀端正/清廉潔白/誠心服從/責任完遂/信義一貫/公平無私/沈着果敢/信賞必罰/率先垂範/恩威兼備



星武칼럼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김치를 싫어하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다. 도시 여대생 가운데 5.8%는 아예 김치와 담을 쌓았으며 도시 초등학생의 8%는 거의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도시인의 절반 이상 그리고 농촌 사람의 3분의 2가 하루세끼를 먹는다고 한다.

김치가 맵거나 냄새가 난다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은 애교가 있는 편이다. 딱하게도 부패와 발효를 구분 못하고 고개를 가로

짚는 사람이 문제이다. 우리네 밥상의 한쪽을 늘 차지하는 것이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류이다. 이런 전통 발효식품을 먹고 뒤탈이 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전문가들은 날로 먹는 야채보다 잘 익은 김치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영양가가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김치의 효용성이 여러 각도에서 입증되고 있다.

김치, 동맥경화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낮춰줘

이 발효식품은 소화 흡수가 쉬운 상태로 분해된 단백질이 많을 뿐 아니라 음식맛을 돋워 주는 젓산을 만들어준다. 김치라고 다를 게 없다. 건강

그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 동맥경화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식품 영양학과 宋英壽 교수는 부산대 김치연구소가 개최

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치의 혈청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합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잘 익은 김치는 암세포의 성장률 30~40% 억제한다고 한다. 속이 더부룩 할 때 소화제 노릇을 해내는 동치미 국물도 그 하나일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도 지난해 김치 특집을 낸 일이 있다. 이 신문은 소화기관에 좋고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이 없는 건강식품이라고 극찬한바 있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김치 문화를 가진 우리는 높은 자부심으로 보다 개발해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굳히도록 다함께 노력하면 어떨는지요.



기술축적 17년, 21C를 관리하는 신천

국내 최대의 건물 종합관리 전문업체로서 철저한 책임의식
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저희 신천개발의 기업이념입니다.

- ▣ 종합설비관리
- ▣ 경비업무
- ▣ 청소관리업무
- ▣ 방역업무



新川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林 石 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TEL : (02) 732-9676 / 9 FAX : (02) 733-3829



金匡榮

○ 광주대학교 정치학교수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까뮈」라는 철학자는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불 중의 하나를 먼저 선택, 결단하고 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것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 자살해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출발하라고 하였으며, 자살할 용기가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해치울 수 있는 자니 자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해치우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하였으니, 청소년 여러분, 어느편입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나 있는 그대로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시작」합니까? 아니면.....

철저히 살아가자면, 철저히 성공적이고 철저히 행복하게 살아가야지요. 하지만 성공과 행복이 그저 쉽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삼칠한 만큼 땅이 파이고 땅이 패인만큼 물이 고이며, 심은대로 거두어온다니 땅을 깊이 파고 좋은 씨앗, 좋은 생각들을 심어야지요.

미국의 Success Motivation Institution(성공동기연구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Unlimited Potential(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25~30% 정도만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10% 정도는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대부분의 70% 정도는 그러저럭 살아가고 이들이 자기들의 무한의 능력을 25~30% 정도만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20% 만이 열심히 살면서 무한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의 능력을 100% 발휘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存在理由」를 갖는데 제일의 요소는 「삶의 目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10대, 20대에立志하였다고, 인생의 目標·뜻을 세웠다고,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이유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한 노인이 양로원이나 육지에서 소외, 놀지 않고 바다로 나갑니다. 왜냐고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고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바다라는 인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며칠간을 풍파와 바다와 싸움을 하면서 고기를 잡겠다고 버티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고기가 안잡힌다면 인간이 苦行인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지요. 노인이 잡은 고기가

너무 커서 인간과 고기가 싸움을 합니다. 노인의 손바닥이 터지고 지쳐 포기하기 직전에 투 고기가 하얀 배를 내놓고 바다 위에 띄웁니다. 이 싸움에서 인간이 진다면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이유

창조, 고뇌로 묘사하여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소녀들이여! 인생에는 반드시 존재이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존재이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 만큼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산을 가졌다는 사람과 백두산, 히말라야산, 북극을 가졌다는 사람과는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걸음걸이와 속도가 다르고 하루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 자는 시간이 다릅니다.

영국의 「워즈워드」 시인은 「무지개」라는 시에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다보면/어쩐지 내 가슴은 두근거려요./내가 어렸을 적에 그랬습니다./어른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늘어진 연후에도 그러하기를/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 무엇해!

일생을 두고 높은 무지개, 높은 뜻, 높은 목표, 높은 꿈, 높은 이상, 높은 야망, 일생에 미칠 標的이 있어야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무지개, 그 이상, 그 목표, 표적을 향해 뛰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Living up to your ideal so far as you can).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성공적인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유태민족은 시간에 관하여 「탈무드」에 물과 물고기 보 비유, 물고기가 물 속에 놀면서 물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놀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의 의미, 귀중함,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크린」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시간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최고는 사람이 열려대왕에게 형을 받았습시다. 그 사람이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저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라고 하였더니 대왕은 「너는 죄없는 것이 없지만 시간낭비의 중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일 미래가 수동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도전·응전과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소녀 여러분, 하나의 높은 꿈, 뜻, 목표를 가지고 오늘이 내 생애에 시작의 날이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열심히 신나게 신나게 사십시오. 귀한 시간·시간「勝點」을 높여 최고로 채우십시오.

봄에 좋은 씨앗을 열심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는 자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꿈·삶의 목표는 생명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존재이유·정신·영혼」입니다.

생명을 잃음은 육체의 죽음의 의미지만, 우리의 존재이유를 잃음은 우리의 정신·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소녀 여러분, 인생은 참되고 인생은 진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미래는 여러분의 「꿈·야망·높은 생각·높은 목표」, 그리고 이 존재이유·정신·영혼을 마지막까지 해치우려고 말겠다는 「의지」, 올바른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詩 하나를

꿈·야망의 소재 길잡이는 독서입니다! 꿈을 가져라

가 없지요. 노인이 지친 몸으로 고기를 매달고 부두에 도착해서 보니 큰 고기의 살은 없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다고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에서 「헤밍웨이」는 인생에서 목표가, 존재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뼈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하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에 적절한 표현이 盡人事 待天命,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이유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人生的 目標」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철학인은 인생은 목표를 향한 「긴 마라톤」이라고 하였으며, 시지프스의 신화에 인생을 바윗덩이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려는 부단의 도전과 투쟁, 응전과

「꿈을 높게 가지세요. 무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천연자원 중에서 천대의 낭비는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슴들입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새로운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명성이란 된 것 같지 않은 일을 찾아내서 해복 때 생기는 것이지요. 목표가 낮으면 무리하게 되지요. 목표가 높으면 하늘을 날 듯하고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어린이」

- 도로시놀데 -

비판 속에 자란 어린이 주저하는 것을 배우며 미운 받으며 자란 어린이 싸움만 하게 되고 비웃음 속에 자란 어린이 겁만 타게 되고 천의식 속에 자란 어린이 수치 앞에서 샅게 되고 관용 속에 키운 어린이 인내를 알게 되며 격려 받으며 자란 어린이 신념을 갖게 되고 칭찬 등으로 자란 어린이 고마움을 알게 된다. 긍정적인 대접 속에 자란 어린이 용바움을 알게 되며 안정 속에 자란 어린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 자신의 긍지를 느끼게 되며 우정 속에 자란 어린이 온 세상에 사상이 충만함을 발견하게 된다.



金永柱(공사 20기)
○ 공군박물관장

韓民族의 時代精神(上)

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이루자는데 중극적 목적이 있다.

과거의 시대정신이 오늘의 정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구대의연한 과거사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며 다가올 미래의 초석이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과거를 바로 알고 오늘의 역사적 전개에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바르게 대응할 역사적 능력을 개발·신장하기 위한 역사적 성찰은 당대의 시대정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며,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역사가 비록 어두운 역사, 잘못된 역사, 수치스러웠던 역사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훌륭한 교훈이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해 온 시대정신이야말로 내일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밝은 역사의 전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어두운 역사의 전개도 있다.

희열과 비탄, 평안과 시련, 도약과 정체가 엇갈리며 흥망성쇠의 반복과 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역사의 전개이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도 고대 한사군 시대의 저항과 굴욕, 중세 불교간섭기의 시련, 근세 조선시대의 탐쟁과 사화 및 일제시대의 고난, 6·25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 등 암울했던 과거가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사에 있어서 이런 국면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 전개였을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시대의 영광을 배태한 모체였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하나 재음미, 성찰하는 가운데 교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부정적인 역사 성찰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정신을 더 진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의 교훈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 사상의 외면적 양상에 현혹되지 않고 차분하게 역사 속에 담긴 내재적 의의를 파악하러

는 노력이 곧 소망을 지닌 민족의 시대정신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時代精神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민족의 시대정신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 동일해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유사성과 동일성을 포함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여 주체적 역량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민족의 독자적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정신이 점철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인간의 발자취가 보인 흔적은 약 40만년 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초기의 식량채집단계를 지나 농경이 시작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등 생산단계로 접어든 것은 B.C. 7~8세기 무렵, 청동기 문화가 도입된 이후의 일이고,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계급분화의 현상과 사회분업 및 정복전쟁 등으로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공동생산, 공동취락의 형태에서 부족의 기능이 확대되고 정치조직 및 기구가 탄생한 것은 약탈·정복을 위한 지배자 또는 지도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곧 국가의 형성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고조선은 여러 차례의 문화변동을 거치면서 연맹왕국을 성립시키는 단계로 발전하였으나 한(漢)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으며, 고조선이 멸망한 뒤 우리 민족은, 서쪽으로는 한민족의 침입 세력과 싸우고 북쪽으로는 여러 유목민족들과 경쟁하는 역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철기 농경문화가 확립되었으며, 고구려·백제·신라의 3국이 성립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고대적 시대정신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이었다.

신석기 시대의 기본적인 사회단위는 혈연 중심의 씨족(氏族)이었는데, 이는 씨족을 구성하는 촌락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조상이 동물이라는 Totem(토템) 씨족을 의미하며, 모든 후세의 만물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Animism(애니미즘)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니미즘은 사람은 물론 산이나 바다, 동물이나 나무와 같은 모든 자연물까지도 영혼을 지니고 있

으며 물체가 없어진 뒤에도 그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 자연물의 영혼 가운데서 특히 신격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태양신(天神)과 조상신이었다.

하늘(天)과 조상에 대한 경의심을 나타내는 시대정신의 발로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의감은 선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매개자를 필요로 함으로써 주술사(呪術師)가 등장하게 되었고, 인간에게서 악인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고친다거나 사냥이나 농경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제의(제의)의 집행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원시적 종교 형태를 무격신앙(巫覡信仰, Shamanism)이라고 일컬어 왔으며, 제정일치(祭政一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정일치적 사회의 최초의 지배자가 고조선의 단군왕검(檀君王)이었는데, 이는 태양주의 후예를 자처하는 주술사적 성격이 강한 지배자를 제사장과 군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군왕검이 태양신을 나타내는 환인(桓因)의 손자였음은 그가 신석기 시대 이래의 씨족사회의 고립성을 극복한 새로운 정치질서, 즉 홍익인간의 질서를 표방한 우리 민족정신의 최초 구현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단군신화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단순한 신화적 허구인가를 떠나,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인 홍익인간의 질서가 그 단초를 여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고조선 사회의 법률인 8조금법(八條禁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진 3조항의 내용,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대표적 사실 속에서 인간 중심의 근본사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제정일치적 종교 형태는 제정분리의 권력 형태로 변하게 되었고 특히 삼국시대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성격은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 제의(祭儀)가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교전(敎典)이나 교의(敎義)가 없는 주술적 무격신앙으로

부터 교의체계를 갖춘 고등종교인 불교(佛敎)사상 또는 신앙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불교는 삼국의 고대국가 체제가 정비될 무렵에 전래하여 와서 고구려는 소수왕할 때, 백제는 침류왕 때 공인되었으며, 신라는 가랑 늦은 법흥왕 때에 이르러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공인되었다.

삼국의 불교는 왕권과 결합하여 호국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으며 왕권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맹왕국 체제에서 고대국가 체제로의 전환기에 전래됨으로써 영역 내의 잡다한 여러 부족들의 신화, 설화 및 무격신앙들을 포용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종교와 철학체계로 이들을 규합시켜 나갔으며 인간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교유의 자기체질을 보유했던 고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 고려시대에 와서 우리 민족은 고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세 문화를 성립시킴으로써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고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민족문화능력이 전체적으로 증대되어 강력한 민족문화정통을 확립한 결과였음을 의미하며, 민족의 시대정신이 한차원 고양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중화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중국과는 다른 성격의 전통과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모방이 아닌 수용의 문화로서 독자적인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성립시킨 것이다.

이처럼 고대문화의 모순을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의식을 토대로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성립시킨 고려인의 시대정신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훗날 강력한 문공의 침입에 대항해서 30여년에 걸친 항전을 전개, 민족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었다.

고려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 중심의 왕조로 출발하였다.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불교국가로서의 사상적 기틀을 확립하고 분명한 통치이념을 제시하였다.

(10면에 계속)

수도 개성에만 70여개의 불사(佛寺)가 건립되었고, 국가적인 각종의 불교행사가 베풀어졌던 것은 불교왕국 고려의 사회상을 대변해준다.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은 철학적 사상체계의 발전보다 현실생활과 밀착되어 귀족들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현세 이익의 종교 내지는 구복(求福)신앙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왕실과 귀족층의 절대적 신앙인 동시에 농민이나 노비들의 종교적 대상으로 자리잡힌 고려불교는 결국 토지·경제제도상의 제반 문제를 야기, 왕조멸망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민족의 시대정신을 이루는 새로운 이념도입의 필요성을 배

태하였으니 곧 유교정치이념의 수용을 초래하였다. 광종 때 실시한 과거제도를 발판으로 새로운 지식계급이 등장하고 성종 때에 이르러 시행된 서적수집 및 각종 교육참려시책은 당대 지배계층의 사상체계를 유교적 통치이념의 수용으로 변화시켰다.

중국에 대한 사대와 관념적인 보수 정치이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습을 수용하면서 충효의 가치관을 민족정신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나 인종 때 김부식(金富弼)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전진적 사회운영원리와 정신적·문화적 결정체가 출현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문벌귀족의 등장과 문교의 침략, 불교의 타락 등 혼란 속에서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시대정신으로 재검립된 것은, 당시 신진주체세력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신홍사대부와 그들의 중심사상인 성리학(性理學)이었다.

성리학은 불교의 선종사상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재구성하여 성립시킨 개인 유교라 할 수 있다.

성리학의 특징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철학적인 가치체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사회적인 윤리 도덕으로서 군신부지의 의리와 정통 및 대의정분을 중시함으로써 이단을 날카롭게 비판·배척하였다.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선전하고 뒤이어 원에서 이를 다시 수입한 백이정, 박충좌 그리고 이계현·이색·정몽주·길재 등을 거쳐 여말선초의 개국공신 정도전·권근에 이르는 동안 성리학은 기존의 불교·유교의 폐단과 고려문화 전반을 비판하면서 민족의 비판정신을 성립시키고,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주자학에 의한 유교의식의 보급에 전력함으로써 정치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이념·문화이념으로 그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조선 초기 관학으로서 발전한 성리학은 주로 정치질서의 변혁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을 특징적으로 강조하였고 백성을 존중하는 민본사상의 발전에 역점이 두어졌다.

한당유학(漢唐儒學)의 가치관이 영토의 확장과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공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면, 성리학은 공리나 실용보다는 의리를 숭상하고 우주 자연과 인간본성의 이치를 탐구하는 사상체계로서, 온건합리적인 주리설(主理說)에 입각하여 학문적 천착을 내세운 학파와 현실 비판적인 주기론(主氣論) 학파로 구분 발전하였다. 이황(李滉), 이이(李爾), 서경덕, 조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중기까지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을 주도한 사상은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의 이상인 의리와 명분, 충효의 윤리도덕개념을 북돋우며 정치·사회적 선비정신이 우리 민족의 혼과 열을 이루었다.

(다음호에 계속)

이교행낭



김석희(공사 6기)
○ 예비역 공군소장

유난히도 햇빛이 따가운 어느날 오후 파란색 행낭을 등에 메고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어느 병사의 뒷모습이 눈에 띄어, 문득 지난날 泰國武官時節 外交行囊 분실로 인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越南의 敗亡으로 東南亞 情勢가 불안정한 가운데 泰國도 국내·외적으로 共產威脅에 직면하여 "도미노 이론이 이 나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될 만큼 불안한 가운데 軍部勢力에 의한 政權 交替가 빈번히 일어나던 1975년 9월에 나는 駐泰國 國防武官으로 임명되어 가족과 함께 임지로 행했다.

立憲君主國家인 태국은 武斷派와 文治派가 서로 다투어 정권을 잡아 왔으며 '75년도에는 軍部の 勢力에 文治派인 "쿠크리트 내각"에서 '76년도에는 "세니 내각"으로 바뀌었으나 政權交替의 中心勢力인 軍部가 現政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軍部の 쿠데타가 일어날는지 모르는 불안한 정국이었다.

泰國軍部の 核心勢力인 高位將星의 상당수가 6·25 당시 泰國軍의 參戰指揮官을 지낸바 있는데 그들 중 親衛派의 한 사람인 泰國軍 最高司令官 "크리앙삭" 陸軍大將이 次期政權의 首相에 오를 것이라는 믿을 만한 소식이 있는 가운데 때마침 '77년도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크리앙삭" 將軍의 2명의 韓國戰參 戰勇士인 陸軍將星이 招請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날은 매월달 한번씩 실시되는 "파우치의 날"이었다. 韓國大使館의 外交行囊은 틈삼 "방콕"주재 KAL 지점에서 본국으로 운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달 가운데 오늘이 가장 바쁜 날이다. 아침부터 서투른 타자ச்ச음으로 하루 종일 각종 報告書를 作成했는데 그중에서 "國軍의 날" 行營에 參附하는 高位將星들의 人的事項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나름대로 빨리 서둘렀건만 파우치가 완성된 것은 오후 네시경이었고 그때 이미 大使館 파우치는 KAL 사무실로 보내진 후였다. 시간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 자신이 직접 공할까지 갈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KAL 직원이 근무차 공할에 간다면서 자기가 직접 접수한다기에 그에게 부탁하고 나는 大使館으로 돌아왔다.

약 2시간이 지났을까. 大使館 전직원이 퇴근하고 나 혼자 잔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상대방은 담화하고 멀리는 목소리로 "武官님 큰일 났습니다. 武官部 파우치를 공할 TAXI 뒷좌석에 두고 그냥 내렸는데 택시소속이나 차번호를 확인

못했습니다."라는 것이다. 瞬間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外交行囊을 분실하다니. 특히나 해서 몇 군데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희망이 없었다.

大使館 통신기사와 의논 끝에 KAL 명의로 "방콕 라디오 방송사"에 電話하여 紛失物에 대한 사할과 찾아 주는 사람에게 대하여 2,000바트(당시 美貨 100弗 상당)의 사례금을 약속하는 廣告를 의뢰했다.

나의 軍生活는 거의 教育을 제외하면 飛行生活이었다. 單座 戰機의 조종은 어느 누구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직 自身만이 澆心하고 措置해야 하며 生死의 岐路에서의 외로움을 맛본 적은 있으나 오늘과 같이 천리타향에서 戰友들의 도움이나 조언이 아쉽게 느껴져 버린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아내와 함께 그날을 뜬

눈으로 지내고 다음날 이 사실을 大使館에 직접 보고드렸다. 이제는 파우치를 찾는 일만이 남은 셈이었다. 찾는다기보다는 누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KAL 事務室로 파우치를 갖다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事務室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파우치를 찾지 못하는 날에는 어떠한 處罰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韓國으로 돌아갈 費用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차를 타고 "방콕" 郊外로 나왔다.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 잠을 뒤지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오만가지 냄새가 풍기고 바람에 먼지가 날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혹시나 파란색 행낭이나 또는 버려진 종이 가운데 문서라도 발견될까 하는 의욕은 마치 한강에 돌을 던지고 찾으려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리 저리 헤매면서 나의 생애에 처음으로 "부처님 원하옵건대 잊어 버린 外交行囊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기도를 드렸다.

한낱 "방콕"의 더위는 이마를 태울 듯이 따갑고

습기는 많아서 더 이상 밖에서 견딜 수 없었다. 이곳에서 헤매는 것을 斷念하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지나는 골목마다 내려다 보는 파란색 옷가지가 나의 視線을 刺戟했다.

집에 다르니 큰달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파우치"를 찾았다는 消息을 KAL 事務室로부터 받았으니 빨리 전화를 해보라는 것이다. 電話內容인 確실히 택시기가 뒷좌석에서 발견한 파란색 보따리에 好奇心이 생겨 內容物을 확인했으나 알 수 없는 종이 문서뿐이었는데 마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보따리가 상당액의 贖金이 붙어 있음을 알고 KAL 事務室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電話通話를 마치고 安堵와 無責任했던 나의 행동에 대한 自責感을 깊이 反省하면서, 그동안 내눈치만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協力해 주던 아내와 아이들의 좋아하는 얼굴모습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되새기면서,

編輯後記와 寄稿文案內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광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젊음을 불살라 조국하늘에 바치고 나이 들어 사회에 나와 나름대로 나라와 겨레에게 봉사하는 기록한 人生歷程을 체험하면서 끊을 수 없는 정분을 동문간에 진솔하게 나누는 것도 큰 보람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원고를 기탁하시고, 만일 청탁하면 거절마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1. 期生會 動靜 또는 消息은 200字×5枚 內外
 2. 自由 寄稿時 題目은 自由 枚數 200字×30枚 內外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178(150-057)
TEL : (02) 845-1090 FAX : (02) 845-1091

編輯發行人 드림

발

축

전

겸허한 마음으로 건축문화 창조



장안의 상징 문화타워

(주) 기산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진출

정치 · 경제 · 문화 · 금융 · 교통 일번지

시행사 (주)거삼 TEL 730-0566

▲ 株式会社 巨三 FAX 734-8197

시공사 (주)기산 TEL 650-6500/6600

|||isan FAX 652-2184